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우크라이나 농업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국제기구회의 출장

1. 출장목적

-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회의 참석 및 향후 추진 방향 협의(EBRD, FAO, 우크라이나 농업부,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우크라이나 키예프	2018. 2. 27(화)~3. 2(금) (2박 4일)
최지현 명예선임연구위원 식품유통연구센터		

3. 주요 내용

- 국제기구(EBRD, FAO),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주재 한국대사관 등 관계자들과 우크라이나 농업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현지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농업협력 여건 파악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

4. 일정표

일 시	내 용	비 고
2.27(화)	○ 인천공항(00:40)→이스탄불(06:15) ○ 이스탄불(09:00)→키예프(10:05)	TK091 TK457
2.28(수)	○ 국제기구, 우크라이나정부, 대사관 관계자들과 농업협력 과제발굴 협의회	EBRD, FAO, 우크라이나정부, 대사관등과 농업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논의
3.1(목) -3.2(금)	○ 키예프(14:00)→ 런던(15:50) ○ 런던(18:50)→ 인천공항(14:45)	BA883 KE908

5. 주요 출장 결과

□ 4자 협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8. 2. 27(화),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회의실

○ 참석자: Olga Trofimtseva 차관, 이양구 대사, 박수민 이사(EBRD 본부), Kostyantyn Kiva 컨설턴트 (우크라 주재 Grant Thornton), Mikhail Malkov 박사(우크라 주재 FAO 소장), Sergiy Maslichenko 박사(EBRD 우크라 사무소 부국장), Anna Lebedynets(EBRD 우크라 사무소 농산업 담당관), Lesya Kuzmenko(EBRD 우크라 사무소 농산업 담당관실장), 김정석 상무(KG 화학), 이대섭 박사, 최지현 박사 외 4명 등 총 16명

○ 주요 논의 내용

- 우크라이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Master plan 수립, 겨울양과 비즈니스 진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시설원에 산업 분야 투자 유치 및 재활용 재생에너지 연계 추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논의
- 농경연측은 겨울양과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현재 EBRD 본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과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EBRD측은 복귀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처리할 것이라 답함
- 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측은 Master plan과 관련하여 민관협력 방식을 골자로 다양한 분야의 투자 방안이 수립되어 현실적인 투자 관련 Platform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실제 포함될 내용은 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결정될 필요성을 강조
- 더불어 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측은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Master Plan 추진 보다 특정 산업의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 마련 방식의 전략 수립을 선호하는 입장. 따라서 양과, 시설원에 등

과 같은 특정 분야의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EBRD, FAO 등 협의회 참석 기관의 공통 관심사는 특정 작목의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양과, 시설원예 및 쓰레기 재처리 에너지 활용 연계 타당성조사 시행, 중장기적으로 곡물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
- 특히, Master Plan 수립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측에서 기타 국가와 수립한 타분야 종합전략 자료를 공유하고, Master Plan의 내용과 추진 형식 및 참여 기관 등은 향후 Working Group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
- 하지만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 대사관측은 투자 전략보다는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선행되고 그 전략내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기를 요청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현재까지 EBRD는 funding 기관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 FAO, 우크라이나 정부, 한국정부 등을 통해 20만 달러 수준을 확보, 전략 수립 및 컨퍼런스 개최 등에 소요하는 것으로 논의 됨.
- 따라서 농경연은 FAO 우크라이나 사무소와 협력하여 기존 우크라이나 농업관련 선행연구 및 정부 관련 정책 문서를 분석하여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종합적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 실무진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8. 2. 28(수), 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Anna Lebedynets(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 농산업 담당관),

Lesya Kuzmenko(EBRD 우크라 사무소 농산업 담당관실장), Ivan Dzvinka(EBRD 우크라 사무소 차관 분석관), 김정석 상무(KG 화학), 이대섭 박사, 최지현 박사 등 총 6명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측에서 제안한 양과사업과 관련된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제출 경위 및 경과에 대한 논의
- EBRD 우크라이나 사무소측은 영국 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과 관련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지구를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농경연측은 구체적 사업지구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발굴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
- 우크라이나 사무소측은 양국본부와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실무진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합의.
- 특히, 우크라이나 사무소측은 한국측 대상기업인 Seedon과의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농경연측에 협조 요청. 또한 본부의 실무 담당자와의 정보공유 시 우크라이나 사무소측도 C.C.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
- 또한 향후 기타 시설원에 사업과 쓰레기 재생처리 에너지(KG Chemical) 연계 사업에도 농경연측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합의.